

#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상위 10개 도시 최초 선정

### 전주시, 종합경쟁력 상위 10개 도시 중 수도권 제외 지방도시 전주·천안 두 곳만 포함

전주시가 대한민국 도시 중 지방자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으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2022' 조사·분석에서 종합경쟁력 10개 상위도시(시 부문)에 최초로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636.4점을 획득

해 시 단위 평균 536.2점보다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대상 전국 시 단위 지자체 75곳 중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됐다.

상위 10개 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전주시와 충남 천안시 단 두 곳 뿐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올해로 27년째 매년 전

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쟁력 지수를 조사·분석해왔으며, 올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지자체 통계 연보와 관련 부처·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취합한 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3개 부문 점수를 측정하고, 점수를 합계해 시·군·구의 종합경쟁

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그만큼 전주가 미래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발판삼아 향후 역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도내 9개 경찰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방 개설·피해자 접근성 높이고자 확대 시행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안보수사과에서는, 기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도내 경찰서까지 확대 운영, 경찰서마다 센터장을 두고, 책임상담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신기술 고부가가치로 인해 기술 유출 범죄는 끊임 없이 발생하지만 기술에 대한 고도의 보안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신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피

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신고센터를 경찰서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영업비밀 유출사범을 다수 검거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 9개 경찰서(완산,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에 산업기술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방을 개설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피해기업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 우수 공공체육시설 종합평가서 전라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지난 25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2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 등 3개 부문 10개 지표에 대한 3단계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라권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최우수시설은 수도권과 충청·제주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를 선정한다.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실, 당구장, 탁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시설로 지역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만2377㎡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9년 11월 1일 문을 열었다.

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사)



전주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2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주공공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앞서 2014년에도 공단이 운영하는 화산체육관이 최우수 체육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들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과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내용은 △고장난 소화포프 방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팩스,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혹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 시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영태 기자

# 전국 책 전문가, 책의 도시 전주 여행

### 전주 곳곳 도서관 둘러보고 정책 제언 간담회 등 진행

전국 독서·출판·도서관 전문가들이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가을 나들이를 즐겼다.

전주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이용남 책임이사화문화재단 이사를 비롯한 전국의 책 생태계 전문가 16명을 초청해 책의 도시 전주에서 즐기는 1박 2일 간의 도서관 여행 행사인 '나들이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책 생태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각각의 특색을 담고 있는 전주 곳곳의 도서관 인프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참석자들은 정책 제언 간담회를 통해 전주 시독서문화 정책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도서관 여행해 실사와 함께 아트북과 회귀 예술 도서가 비치된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한옥 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한옥마을도서관' △여행자들의 험터이자 길잡이인 '다가여행자도서관' △숲

속에서 시를 벗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25일에는 공간 혁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책놀이터로 탈바꿈한 금암도서관과 인후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전주 시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책 전문가들은 이들간의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책의 도시 전주의 발전 가능성과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정책제언 간담회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책 생태계 구성원들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풀뿌리 생활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주 시독서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시 도서관본부장은 "책 생태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전주 시의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와 독서문화를 널리 알리고, 책이 시민 삶에 녹아드는 도시이자 책이 삶이 되는 전국 최고 책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중 긴급 물류차량 에스코트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관련, 긴급한 물류차량에 대한 에스코트 전담팀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에스코트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물류차량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IC 또는 주요요차로부터 관할 사업장까지의 구간을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비하고 안전한 운송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교통순찰차 2

대를 동원해 물류차량 2대를 대상으로 약 2.6km 구간을, 이어서 11시 20분경 교통순찰차 2대와 경찰오토바이 2대를 동원해 물류차량 3대에 대해 약 4.2km 구간을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실시했다.

위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태 기자

